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강 경 선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노래 만들기 활동이  
시설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2011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조 미 라

노래 만들기 활동이  
시설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강 경 선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조 미 라

# 인 준 서

조미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김동민 인

심사위원 양은아 인

심사위원 강경선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감사의 글

이 논문을 쓰게 허락하시고 음악치료사의 비전을 갖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한 학업과 교회 사역, 배우자와의 만남, 결혼, 출산 과정 가운데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늘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논문이 나올 수 있도록 채찍질해주시고 지도해 주신 강경선 교수님, 논문 심사로 수고해주신 김동민 교수님, 양은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논문을 쓰며 울고 웃었던 6기 상큼 은혜와 카리스마 은의와도 함께 기뻐하고 싶습니다. (애들아! 수고 많았다!)

변함없는 사랑과 인내, 기도로 딸을 위해 헌신하는 엄마와 대학원 다니는 누나를 자랑스러워하는 동생 성재(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너에게 지금 보다 더 멋진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거야!), 그리고 논문 때문에 울고 웃는 부인을 늘 변함없는 소나무처럼 지켜봐주며 격려해준 신랑이자 음악치료학과 후배인 남편 해욱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부산에서 며느리를 위해 늘 기도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최고의 기도 동역자인 시부모님과 영아가씨,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엄마를 응원해주고 건강하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랑스런 딸 예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부족한 저를 유초등부 사역자로 잘 키워주시고 인도해주신 신림동교회 이홍배 담임 목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함께 교육 부서로 수고하며 친자매처럼 친근해진 상담의 대가가 될 민전도사님, 학업 중에 있으신 이근희 부목사님, 발랄하고 친언니같은 효영 사모님, 유초등부에서 함께 헌신하는 모든 교사와 영적인 부모님인 이봉섭 목사님과 옥주 사모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논문이 나오기를 누구보다도 기다리며 기도해준 10년지기 은혜언니와 설화언니, 명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 논문 개요

본 연구는 노래 만들기 활동이 시설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연구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S 아동양육 시설에서 생활하는 초등학교 1~2학년(8~10세)으로 음악치료 경험이 없는 아동 10명으로 구성하였다. 실험집단을 위한 노래 만들기 활동은 S 아동양육 시설 기관 내의 지역아동센터 밴드부실에서 주 2회, 약 50분씩 총 12회기에 걸쳐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에 위한 측정 도구로는 Coopersmith(1967)와 Pope, McChale, Craighead(1988) 등의 연구를 참조하여 최보가와 전귀연(1993)이 우리나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연구 개발한 척도 중 총체적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자아존중감 영역만 선택하여 설문조사 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Win 12.0 통계 프로그램으로 시설아동의 자아존중감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Wilcoxon's signed-ranks test)을 실시하였으며, 질적 연구로써 음악치료 개입 후 대상자들의 개별적인 행동변화를 기술하였다.

연구결과 시설 아동의 자아존중감 점수는 노래 만들기 활동을 실시하기 전보다 실시한 후에 향상되었다. 총체적 자아존중감 평균은 2.66(SD=0.36)에서 3.76(SD=0.67)으로( $p<.05$ ), 사회적 자아존중감 평균은 2.74(SD=0.36)에서 3.50(SD=0.24)으로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05$ ). 또한 개인별 총체적, 사회적 자아존중감 사후 검사 역시 사전 검사에 비해 향상된 점수 변화를 보였다. 치료사에 의해 기록된 개인별 대상자들의 전반적인 행동변화 분석 결과 다수의 아동이 회기가 거듭될수록 초반에 비해 언어적, 음악적으로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래 만들기 활동이 시설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적인 중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및 가설 .....	4
3. 용어의 정의 .....	4
II. 이론적 배경 .....	6
1. 시설아동 .....	6
1) 시설아동의 정의 및 특징 .....	6
2. 자아존중감 .....	7
1) 자아존중감의 개념 .....	7
2) 시설아동의 자아존중감 .....	9
3)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 .....	10
3. 시설 아동을 위한 음악치료 .....	11
1) 그룹 음악치료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	11
2) 시설아동을 위한 음악치료 적용 .....	12
(1) 노래를 중심으로 하는 음악치료와 자아존중감 .....	12
(2) 시설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노래 만들기 기법 .....	14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	17
1. 연구 대상 .....	17
2. 측정 도구 .....	25

3. 연구 설계 및 절차 .....	27
4. 자료의 분석 .....	28
5. 노래 만들기 활동 프로그램 .....	29
1) 프로그램의 구성 .....	29
2) 프로그램 회기별 구성 .....	33
<b>IV. 결과</b> .....	<b>36</b>
1. 결과 및 해석 .....	36
2. 시설아동의 개인별 자아존중감 변화와 전반적인 행동변화 .....	39
<b>V. 결론 및 논의</b> .....	<b>55</b>
1. 결론 및 논의 .....	55
<b>VI. 제언</b> .....	<b>59</b>
1. 제언 .....	59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 표 목 차

<표 1> 실험집단 대상자의 특성 .....	17
<표 2> 자아존중감 척도의 문항 구성 .....	26
<표 3> 연구 설계 모형 .....	27
<표 4> 시설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 .....	33
<표 5> 시설아동의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비교 .....	36
<표 6> 시설아동의 사회적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비교 .....	38

## 그림 목 차

<그림 1> 시설아동의 총체적 자아존중감 변화 .....	37
<그림 2> 시설아동의 사회적 자아존중감 변화 .....	38
<그림 3-1> 김성○ 아동의 사전-사후 자아존중감 변화 .....	39
<그림 3-2> 박혜○ 아동의 사전-사후 자아존중감 변화 .....	41
<그림 3-3> 이호○ 아동의 사전-사후 자아존중감 변화 .....	42
<그림 3-4> 한민○ 아동의 사전-사후 자아존중감 변화 .....	44
<그림 3-5> 윤수○ 아동의 사전-사후 자아존중감 변화 .....	46
<그림 3-6> 강세○ 아동의 사전-사후 자아존중감 변화 .....	47
<그림 3-7> 김수○ 아동의 사전-사후 자아존중감 변화 .....	49
<그림 3-8> 김재○ 아동의 사전-사후 자아존중감 변화 .....	50
<그림 3-9> 김태○ 아동의 사전-사후 자아존중감 변화 .....	52
<그림 3-10> 정동○ 아동의 사전-사후 자아존중감 변화 .....	54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사람은 가정에서 최초로 부모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작용하며 사랑과 관심, 보호를 경험하고 부모의 가치관을 내면화하면서 사회적 존재로 변화되어간다(이수희, 2005). 특히 유아기 때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 관계를 통해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은 자아 개념과 함께 취학 전에 그 바탕이 형성되어 인생 전반을 통해 계속 변화되고 발달하여 개인의 사고 과정, 정서, 태도, 가치관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박미자, 2005).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과 발달에 있어 부모와의 상호작용, 부모의 반응, 부모의 기대 등은 중요한 요인이다. 어린 시절 부모의 관심과 수용, 보호, 지지를 충분히 받은 아동은 안정과 지위를 획득하면서 높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며 성장하게 된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대인관계를 잘 맺으며, 능동적이고 창의적이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에 일관성을 가진다(Coopersmith, 1967). 반대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지 못한 아동은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이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원만한 사회생활과 자아실현에 장애를 가지게 된다.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이 가족적 환경과 관계가 깊다고 주장하면서 부모-자녀 관계를 강조했으며, Gecas(1972)는 아동이 자신에 대한 부모의 평가를 흡수하여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며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에 대해 설명하였다(박영립, 최해립, 2002, 재인용).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정은 현대 사회에 접어들어 경제 불황과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가족 구조의 변화 그리고 가

치와 규범의 변화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 미혼모, 별거, 이혼율의 증가, 자녀 방임 및 유기 등의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이로 인해 많은 아동들이 가정에서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통해 건강한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박미자, 2005).

경제적 이유, 가정 해체, 학대, 부모 사망 등의 요인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부모 혹은 타인에 의해 아동양육시설로 위탁되는데, 양육시설은 아동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를 받으며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다. 국내 양육시설의 수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2000년도에는 269개, 2010년에는 280개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보건복지부, 2010).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부모 상실을 경험한 시설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며 성장한다. 낮은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정서, 인지, 사회성 발달 등의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자기표현, 자신감, 성취감 결여, 우울,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홍수진, 2011). 이러한 문제가 지속될 경우 반항, 비행 행동, 부적응 등의 더 큰 문제를 유발하므로 시설 아동의 낮은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치료적 중재가 필요한 실정이다. 시설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중재로 심리 상담과 독서, 음악, 미술, 원예, 놀이 치료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 중 음악치료는 노래 부르기, 노래 만들기, 악기 연주 등의 치료적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기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성공적인 음악경험으로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적인 치료방법이다(최미환, 2006). 박은진(2007)의 연구에 의하면 음악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의사소통 수단이며, 성공적인 음악경험은 자신감과 성취감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은 발달 초기에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발달되지만, 형성된 자아존중감은 주위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통해 계속해서 수정

되고 변화된다(도현심, 최미경, 1998; 신원영, 2010). 특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족의 영향보다 또래 집단과 개인 간의 관계 속에서 변화하기 때문에 아동이 속한 집단은 자아존중감에 큰 영향을 준다.

시설 아동은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거나 상실된 상태이므로 시설 내의 또래 집단은 부모부재로 인해 초래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집단이다. 유안진, 한유진, 김진경(2003) 등의 연구에 의하면 시설 아동은 또래를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존재로 인식하며 교사나 보육사와 같은 성인의 지지보다 시설에서 같이 생활하는 또래의 지지를 더 높게 지각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시설 아동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의미 있는 또래 관계에서의 사회적, 정서적 지지를 통해 긍정적으로 발달할 수 있다(박지은, 2010). 시설 아동의 경우 또래 집단으로 음악치료를 하는 것이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적인데, 음악활동을 통한 또래의 칭찬과 격려, 인정은 대상 아동에게 직접적인 사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김영미, 2000). 이와 같은 사회, 정서적 지지는 아동으로 하여금 자기 통찰의 시간을 갖게 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와 가치를 재인식함으로써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도록 도와준다(이지혜, 2009). 또한 집단음악치료는 집단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이야기를 인정하고 지지해주게 되는데 이때 아동은 자신의 표현이 경청되고 인정받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즉 자신이 그룹 구성원으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개인의 자아존중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이명선, 2009). 그러므로 본 연구는 낮은 자아존중감이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받는 사회, 정서적 지지로 인해 긍정적으로 발달할 수 있다는 Coopersmith(1967), Clemes와 Bean(1983), Hartup(1985)의 연구를 참고하여(박지은, 2010, 재인용), 음악치료를 진행하고자 한다. 즉, 또래 집단의 지지와 인정을 통한 자기 통찰과 재인식의 과정을 경험하는 노래 만들기 활동을 실시하여 시설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및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노래 만들기 활동이 시설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 노래 만들기 활동에 참여한 시설아동의 총체적 자아존중감은 사전 사후 간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 - 노래 만들기 활동에 참여한 시설아동의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사전 사후 간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 3. 용어의 정의

### 1) 시설아동

시설아동은 아동복지법 제2조 2항에 기록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능력이 없어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양육 시설에 맡겨진 3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2010, <http://likms.assembly.go.kr/>).

### 2) 자아존중감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해 내리는 평가라고 하였다(신진희, 2005).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내리

는 주관적인 평가로 자신의 모든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인 총제적 자아 존중감, 다른 사람의 친구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인 사회적 자아존중감, 2개 영역이다(최보가, 전귀연, 1993).

### **3) 노래 만들기 활동**

본 연구에서 시설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노래 만들기 활동은 그룹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며 기존의 노래를 개사하거나 빈칸 채우기 등의 자기표현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또래의 지지와 인정이 담긴 노래 만들기 활동을 통해 자기 통찰을 유도함으로써 자기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자신감을 갖도록 지원하는 심리 치료적 중재를 의미한다.

## Ⅱ. 이론적 배경

### 1. 시설아동

#### 1) 시설아동의 정의 및 특징

시설아동이란 부모가 아동에 대한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을 경우,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집단 보호해주는 시설에서 살게 되는 아동을 의미한다(신화숙, 2006). 아동이 시설에 입소하게 되는 원인은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미혼모, 가출, 사망 및 부모의 학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아동이 성장하는데 바람직한 환경이 아닌 경우가 많다(김미성, 2001). 이로 인해 시설 아동들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특성을 보인다.

심리적 특성으로는 부모의 상실로 인한 슬픔, 분노와 불안, 긍정적 정체감의 결핍으로 인한 낮은 자아존중감, 좌절감과 무기력함,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들 수 있다(김삼희, 2007). 행동적 특성으로는 가출, 장기결석, 공격적 행동, 지나친 수줍음, 소극적 행동, 주의 산만, 거짓말, 의존적 행동 등이 있다(최은희, 2006). 신소희(1984)의 연구에 의하면 시설아동들은 일반 아동에 비해 11배의 가출 경험과 장기 결석, 3배의 흡연 경험, 자살 충동의 경험수준이 유의미하게 높다고 하였다. 또한 시설 아동은 부모와의 정상적인 상호작용 기회를 놓침으로 불리한 사회화 과정을 겪으며 자신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인적, 물적 자원, 경험의 부족으로 대인관계 형성 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의 결여 등과 같은 사회적 특성을 보인다(노명숙, 2005). 시설아동은 자신의 행동에 있어 일반아동보다 사회적 책임감이나 도덕적 책임감이 부족한 편이며, 자기 통제가 잘 되지 않아 다른 아동과의 협력관계에서 충

동적이고 파괴적이며 싫증을 잘 내고 특히 경쟁의식이 지나치거나 아주 소극적이므로 바람직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다(정인숙, 2004). 이는 시설아동이 스스로 시설에 살고 있다는 열등감으로 인해 쉽게 자기를 노출하지 않으며,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깊은 상처로 인해 사람에게 신뢰감을 느끼지 못하며 친밀한 접촉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김기영, 김춘경, 2003). 그러나 김혜숙(1996)의 연구에 의하면 시설 아동들은 낮은 사회적 기술 수준으로 인해 또래 및 대인관계에서 소극적이거나 거부 혹은 소외를 느낀다는 기존의 연구와 다르게 친구를 사귀는데 별다른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시설 아동은 시설 생활을 통해 친구들과 협조적이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부모로부터 결핍된 심리, 정서, 사회적 지지를 경험한다고 한다(홍영미, 2010).

그러므로 시설의 또래 관계를 활용한 치료 중재는 시설 아동의 심리, 정서, 사회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행동의 원인이 되는 낮은 자아존중감을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

## 2. 자아존중감

### 1) 자아존중감의 개념

자아존중감은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며 인간의 생애에 걸쳐 변화, 발전하는 것으로 자신에 대한 평가적 태도나 가치판단 또는 각 개인이 자신에게 부여하는 가치라고 정의된다(신진희, 2005). 자아존중감을 학문적으로 정의하고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는데 공헌한 학자들이 있는데 Coopersmith와 Rosenberg가 대표적인 예이다(신원영, 2010).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이 유능하고 중요하며,

성공적이라고 믿는 정도를 의미로 정의하고, 일반적인 자아존중감과 사회, 학교, 가정 등 생활영역에서 느끼는 자신의 평가를 구분하여 측정하였다(박지은, 2010, 재인용). Rosenberg(1965)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의 존경과 가치에 대한 정도를 판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자신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였다(이미숙, 2002, 재인용). 이들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의 전반적인 가치에 대한 평가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는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개인의 바람직한 적응과 건강한 인성발달에 중요한 요소인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처한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는 중요한 주변 인물과의 상호작용과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심 있는 행동과 자신의 성공적인 경험 등에 의해 계속해서 영향을 받으며 형성되고 변화되어 가기 때문이다(박경리, 김정연, 2001). Coopersmith(1967)는 자신이 성취하는 사회적 지위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받는 존중과 수용의 정도가 자아존중감 발달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하였다(최은희, 2006, 재인용). 즉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이 발달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가족이나 계층 혹은 특정 집단의 중요한 일원이라는 느낌과 개인의 개성이나 독특함이 타인에 의해 수용되고 지원받는다는 느낌이 충족되어야 한다.(박지은, 2010).

인생 전반을 통해 계속해서 발달하는 자아존중감은 생활 속의 중요한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관계 속에서 그들의 반응과 평가에 의해 형성되고 영향을 받는다(장영숙, 윤경아, 2005).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행동특성에 영향을 주어서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나 자신의 삶에 대한 행동양식을 결정지어주기 때문에 건강한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고 긍정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2) 시설아동의 자아존중감

가정은 아동의 기본적인 생활양식, 행동양식 및 성격형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장 근본적인 환경이다(김소연, 2001). 그러나 시설로 위탁되는 아동의 경우 일반 가정환경이 아닌 시설에서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심리적, 정서적 불안과 애정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된다. 가정에서 경험하는 부모와의 상호작용과 부모의 반응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아동은 부모의 상실로 인해 건강한 자아존중감의 기초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박정옥(2003)의 연구에 따르면 가정은 외부에서 생긴 갈등을 대화를 통해 해결해 줄 수 있는 장소여야 하는데 자신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없는 시설 아동들은 스스로 느끼게 되는 열등감으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게 된다고 하였다.

시설 아동들은 불안정한 가족체계와 부족한 심리적 지지로 인해 자신이 부모로부터 버려졌다고 생각한다. 또한 자신을 무가치한 사람으로 생각하여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게 되고 부정적인 자기 평가를 하게 된다. 이로 인해 아동은 자기 행동과 생각에 대해 자신감을 상실하며, 대인관계에서도 소극적이고 위축된 모습을 보인다. 박인숙(2006)의 연구에 의하면 시설아동은 자기를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하며 타인의 관심이나 인정에 민감하고 자기 평가를 타인에게 의존하는 경향과 ‘잘해도 소용없다’는 식의 좌절감이 강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낮은 자아존중감은 시설 아동의 전반적인 행동과 생각에 영향을 미쳐 행동양식과 사회 적응의 유무를 결정짓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김기영, 김춘경, 2003), 건강한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 3)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

Perry와 Bussey(1984)는 또래(peer)란 연령, 성별, 학년의 수준이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정신적, 신체적 발달과 행동이 유사하고 일상적으로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였다(박지은, 2010, 재인용). 아동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해가면서 점차 부모와 가족의 품을 벗어나 보다 넓은 타인과의 접촉을 시도하게 되는데 그 대상이 바로 또래이다.

또래관계(peer relationship)는 서로에게 애정과 호감, 관심을 가지고 친밀한 상호 작용을 하는 관계이다. 아동은 또래관계를 통해 사회인지(social cognition)를 발달시키고, 정서적 지지를 획득하며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에 적응하거나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을 얻게 된다.

또래의 기능에 대해 Hartup(1985)는 또래가 정서적 지지의 근원이 된다고 하였는데(박지은, 2010, 재인용), 이는 또래관계를 통하여 아동들이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돌봄을 표시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자아 지지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Hirsch와 Reischl(1985)의 연구에 따르면 또래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친구 관계의 정도를 깊게 인식하는 아동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하였다(김수진, 2002, 재인용). 또래는 서로에게 중요한 강화자가 되며 아동은 부모뿐 아니라 또래가 자신의 행동에 보여주는 칭찬과 비난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며 이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게 된다(송명자, 2001). 또래는 아동에게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사회적 비교의 기능을 갖으며, 아동은 아동기부터 자신이 속한 또래 집단에 비추어 자신의 성격, 가치, 능력들을 비교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평가는 아동의 자아상과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박지은, 2010).

시설 아동들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시설의 또래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상

호작용하며 생활한다(노현미, 2009). 부모의 상실을 경험한 시설 아동의 경우 또래로부터의 사회, 정서적 지지는 부모와 가족을 대신하는 의미 있는 타인의 실제적이고 정신적인 지원을 의미한다(이지혜, 2009). 그러므로 또래 친구에게 받는 사회, 정서적 지지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시설 아동으로 하여금 ‘나는 괜찮은 사람, 가치 있는 사람, 사랑 받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시각의 자기 통찰을 통해 건강한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발판이 되어 준다(안지숙, 2008).

### **3. 시설 아동을 위한 음악치료**

#### **1) 집단 음악치료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시설에서 집단으로 생활하는 아동의 경우 집단 음악활동은 다른 사람의 느낌과 감정을 수용하는 법과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협동심과 타인에 대한 이해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박은진(2007)의 연구에 의하면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은 음악활동을 통해 타인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과 자기 욕구를 조절하는 인내심과 절제력, 융화능력 등을 배우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아동은 집단 음악활동을 통해 소속감과 동질감을 느끼고, 나와 타인과의 공통점과 차이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됨으로 나와 타인을 이해하며 자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으며 자기가 집단에서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되면서 자기 가치감을 갖게 된다(김미숙, 2009). 이를 통해 아동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생각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강정숙, 2005).

Yalom(2008)은 집단 치료의 중요성과 이로움에 대해 설명하면서 집단에서의 치료적 요인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 중에 하나로 집단 응집력은 구성원

들이 집단에서 따뜻함과 편안함, 소속감을 느끼고, 집단 구성원들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아 무조건적 수용과 지지를 받게 되는 집단의 조건을 의미한다. 집단 응집력은 그 자체로 강력한 치료적인 힘이며 다른 치료적 요인들이 최상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러므로 집단의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수용하고 지지해주며 집단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들은 집단 응집력이 강한 집단에서 비로소 자신을 개방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자기와 남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더 깊은 상호 작용을 하게 된다(최소림, 2006). 집단 음악활동에서 구성원들에게 수용되는 지지적인 환경은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켜 주며, 음악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상호교류를 통해 음악적 기술 뿐만 아니라 음악 외적인 사회적 기술도 습득하게 한다. 이와 관련해 Priestly(1975)는 집단음악활동의 주요 목표를 개인 내면의 감정을 인식 및 표현하고,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정립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호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안지숙, 2008, 재인용).

자아존중감이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받는 존중과 관심, 긍정적 평가와 수용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미루어 볼 때(김정은, 2003), 음악을 사용한 상호간의 지지와 또래에게 수용되는 긍정적인 교류를 제공하는 집단 음악치료는 아동에게 사회, 정서적 지지와 안정감,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이 된다(김미성; 2001, 윤소연; 2001).

## 2) 시설 아동을 위한 음악치료 적용

### (1) 노래를 중심으로 하는 음악치료와 자아존중감

노래를 중심으로 하는 음악치료는 다양한 형태의 노래를 치료의 주 자원으로 하여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음악심리치료의 한

방법이다. 주로 노래 가사와 음악적 특징을 이용하여 내담자의 의식과 무의식, 내적 갈등을 노래를 통해 자연스럽게 투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내담자 내면의 다양한 문제들을 노래를 통해 확인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치료 형태를 의미한다(최미환, 2006).

노래가 가지고 있는 치료적 기능은 다양한데, 첫째로 노래는 인간의 본질을 반영하고 인간 내면의 다양한 감정들을 전달하고 있어 대상자가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반영해주며 더 나아가 대상자의 상태와 문제를 수용해주고 외부에 표현해주는 기능을 한다. 둘째, 노래는 비위협적인 안전한 구조를 제공한다. 이것은 대상자가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관찰할 수 있도록 편안함을 제공한다는 의미인데, 대상자가 특별히 언어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대상자의 목소리, 노래 선곡, 연상되는 내용, 노래 만들기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무의식에 있는 자신의 감정과 갈등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최미환, 2006).

이러한 치료적 기능은 음악치료 안에서 노래가 다양한 역할을 하도록 한다. 첫째, 노래 가사에는 특정한 내용이 있는데 가사의 특정한 메시지는 개인의 이야기를 대변하며 인간의 사고나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집단 치료에서 노래 가사는 자신과 관련된 경험과 생각에 대한 연상을 통해 집단 구성원들과 공통된 관심사를 형성해 치료 그룹의 역동성을 증가시키고 집단을 하나로 결속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김선미, 2005). 둘째, 노래는 노래와 관련된 자신의 기억을 회상하며 가사의 내용에 감정이입, 투사하는 과정을 통해 내면의 생각, 갈등,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셋째, 노래는 집단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공통된 주제의 노래를 부르는 활동은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함께 활동에 참여하게 하여 집단의 응집력과 결속력을 증가시켜준다. 또한 함께 노래 부르는 활동은 집단의 소속감을 높여주고 사회성을 향상시키며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노래로 형성된 그룹의 역동은 사회적 교류의 동기를 마련

해주며 하나의 공통된 관심사를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임현정, 2009).

노래를 치료의 주 자원으로 사용하는 노래심리치료의 방법 중 노래 만들기(song writing)는 포괄적 의미의 창작활동이다(최미환, 2006). 노래 만들기는 언어로 직접 표현하기 어려운 자신의 생각을 노래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경험은 대상자들에게 성취감을 가지도록 유도하며 자신감을 갖도록 해준다. 노랫말 채우기(fill-in-the-Blank), 개사하기, 작사·작곡, 즉흥 노래 만들기 등 다양한 형태의 창작활동은 대상자의 필요, 치료 목적에 따라 적용되는데, 노래 만들기는 치료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을 회복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접근이다(최미환, 2006). 현수경(2000)의 연구에 의하면 노래 만들기는 알코올 환자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부정적인 자기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적절한 중재방법이라고 하였다. 또한 Johnson(1981)의 연구는 노래 만들기 기법이 사회성이 부족하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중재라고 하였다.

노래 만들기 기법은 자기 탐구가 필요한 사람, 통찰의 기회가 필요한 사람, 자기표현을 위한 긍정적인 분출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되므로(최미환, 2006),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인해 자기표현 및 자신감과 성취감 결여 등의 특징을 보이는 시설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도 적절한 중재 방법이 될 수 있다.

## (2) 시설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노래 만들기 기법

노래심리치료의 한 기법인 노래 만들기는 주로 자기를 표현하고 억압되어 있는 감정과 욕구를 표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게 되는데, 스스로 노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통해 재인식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인지체계를 형성하는 방법이다(안지숙, 2008). 자신과 관련된 내용으로 새롭게 가사를 바꾸는 과정은 자신의 현재 상황과 심리상태에 대해 자각하고, 앞으로 어떤 행

동의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지를 통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가사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작업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며, 자기 내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김은정(2007)의 연구에 의하면 노래 만들기 기법은 대상자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고 정리하고 통찰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였다. Silverman(2003) 역시 노래 만들기가 대상자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고 치료에 몰입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정현주, 2005, 재인용).

노래 만들기 기법 중 노랫말 채우기(fill-in-the-blank)는 기존의 노래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치료사가 의도적으로 가사에 빈칸을 남겨 놓아 활동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단어를 바꿔 새로운 노래가사로 만드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표현에 어려움을 겪으며 자신감이 결여된 아동의 상황을 고려해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화된 방법을 사용하였다. 노래 가사를 바꾸는 활동은 언어로 직접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소극적인 아동의 생각을 스스로 통찰하고 노래 가사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게 하는데 효과적이다(최미환, 2006).

음악을 심리 치료적 도구로 활용할 때 Wheeler(1983)의 세 단계 심리 치료적 적용이 언급된다. 첫째는 지지적 활동 중심으로 음악이 제공되는 단계이며, 둘째는 통찰력을 통한 재교육에 목표를 두고 접근하는 단계이다(정현주, 2005,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Wheeler(1983)의 심리 치료적 적용 이론과 자아존중감이 의미 있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된다는 연구를 참고하여 시설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노래 만들기 활동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초기 단계인 첫 번째 지지적 활동 중심의 음악치료는 치료사가 아동을 지지하고 존중하는 차원에서 음악적 개입을 구성하였다. 노래를 만드는 과정 중에 치료사의 존중과 수용, 이해는 아동과 치료사 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과 편안한 환경에서의 자기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이때 치료사는 아동이 표현한 생각을 최대한 강화해주며 자아를 지지해준다. 치료사의

적극적인 지지와 강화는 아동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제공하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노래 만들기를 통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관계를 형성시키며 그룹의 응집력을 강력하게 함으로 다음 음악치료 단계로 발전하도록 도와준다.

두 번째 단계는 통찰을 통한 재교육에 목표를 두고 접근하는 방법인데, 타인이 보는 나의 장점과 특징을 담은 노래 만들기를 통해 스스로 통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아동은 자신의 장점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동시에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다. 또래의 지지와 칭찬 및 격려를 통한 자기 통찰은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음악 활동 및 음악 외적인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는데(이명선, 2009), 악기 연주 및 음악극을 함께 완성해가는 노래 만들기의 결과물은 아동에게 성취감과 만족감을 준다.

노래 만들기는 노래를 만드는 대상이 현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통찰하여 적절하게 자기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최소립, 2006). 또한 아동 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노래는 자기에 대한 긍정적 지지와 함께 타인의 신뢰와 수용을 경험하게 하며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재인식하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래 만들기 활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치료적 효과를 기대하며 다양한 노래 만들기 방법 중 노랫말 채우기, 개사하기, 악기 연주를 사용한 음악적 중재가 시설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S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초등학교 1~2학년(8~10세) 남녀 아동 10명으로 하였다. 대상자들은 시설의 사회복지사 1명과 임상심리상담사 1명에 의해 의뢰되었으며, 일상생활에서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인한 심리, 행동, 사회적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들로 대상자들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실험집단 대상자의 특성

대상	성별	연령	입소연령	입소배경
A	여	8	1	부-교도소 수감, 부모 이혼
B	여	8	4	부모-지체장애
C	남	8	1	부-교도소 수감, 가정형편
D	여	9	2	부-교도소 수감, 가정형편
E	여	9	3	미혼부
F	여	9	7	부의 학대
G	여	9	5	모-정신병원, 가정형편
H	남	9	5	부모 이혼, 가정형편
I	남	9	6	미혼부
J	남	10	7	부모 이혼, 가정형편

## 1) 각 대상자의 개인별 특성

### (1) A 아동의 특성

A 아동의 부모는 인터넷 상으로 만나 아이를 출산하였으며, 현재 부는 사기죄로 교도소에 수감해있다. 부모 이혼 후 형편이 어려워 시설에 맡기게 되었다. 또래에 비해 성숙한 외모이며, 친구들과 사이에서 공주병이란 별명으로 불린다. 애교가 넘치며 모든 이에게 친절하며 날마다 선생님 옆에 앉아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 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무슨 일이든 나서서 제일 먼저 하려고 하지만 막상 선생님이 질문을 하거나 요구하는 사항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때 자신감 없는 소극적인 목소리로 반응하며, 자기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견에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일관성 없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인다. 어떤 일이든 처음에는 “못해요. 안해요. 다른 사람부터 시키면 안되요?”라며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인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친구들의 부정적인 반응(무반응 혹은 산만한 분위기)과 타인의 평가에 예민하다.

### (2) B 아동의 특성

동생(유치원)과 입소했으며 부모 둘 다 지체장애가 있다. 정상적인 양육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이유로 시설에 보내졌으며 현재 부모와 연락이 안 된다. 함께 입소한 동생은 시력이 거의 없어 시력장애인이다. B아동은 주 2회 언어치료를 받고 있으며, 언어 장애는 기질적 장애라 판명되었다. 언어 장애로 인해 자신감이 없으며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경향이 있다. 또래에 비해 학업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학습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인다. 상담심리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평소에 아동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꺼리며 대화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답답해하며 속상해한다고 하였다. B 아동은 언어장애로 인해 행동 및 의사소통 기능이 위축되어있으며,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보아 자존감이 낮음을 알 수 있다.

### (3) C 아동의 특성

부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모에 의해 시설에 입소되었다. 버릇없이 맘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심하다. ADHD약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주위 산만하고 남들에 비해 집중하는 시간이 매우 짧으며 계속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말을 걸며 귀찮게 하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 또래와 친하게 지내려 하나 친구들이 함께 노는 걸 즐거워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 받으며 난폭한 행동으로 주위를 집중시키는 모습을 보인다. 상담심리 선생님의 의하면 평소에 C 아동은 “친구들과 선생님이 나만 미워하고 싫어한다”라고 말하며 시설 선생님에게 반항하거나 또래 친구들을 괴롭힘으로 자신의 불쾌한 감정을 표현한다고 한다. 또한 C 아동은 친구들과 일반적인 대화를 하거나 상담 선생님과 상담하는 시간에 자기 생각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며 횡설수설 할 때가 많다고 한다.

### (4) D 아동의 특성

조선족 부와 모 사이에 태어난 딸이다. 부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3명의 자녀를 두었고 재혼 후 D 아동을 낳았다. 어머니는 욕설, 담배, 폭력 등으로 아동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아동은 또래친구 E 아동에게 휘둘리며 끌려 다니는 경향이 있으며 E 아동

이 지시하는 대로 무조건 복종하는 모습을 보인다. 자기 의사표현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며 E 아동의 지시에 따라 자기의 행동과 생각을 바꾸는 허수아비 같은 모습을 보인다. 얼굴표정의 변화가 별로 없으며 평소에는 무표정으로 우울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감정을 좀처럼 표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시설 친구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D 아동은 시설에서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도 역시 E 아동을 제외한 다른 아동과는 별다른 상호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른 아동에 비해 D 아동은 또래와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보이며 자기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점이 두드러진다.

#### (5) E 아동의 특성

미혼부에 의해 양육되다가 가정형편으로 맡겨졌다. 모는 미성년이며 현재 연락이 안 된다.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며 리더 역할을 하려고 하며 친한 친구 D 아동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종종 이유 없이 친구를 때리거나 폭력적인 언어로 무시한다.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의하면 E 아동은 나이에 비해 몸집도 크고 힘이 세며 또래 관계에서 욕설을 하며 기선 제압하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음악치료 첫 시간에도 계속되었는데, 치료사에게 큰 목소리로 거칠게 대답하는 행동과 알 수 없는 비명으로 음악치료 시간을 방해하며 거침없이 대드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비상식적인 행동은 또래 친구들이 음악치료에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싶은 의지를 보이며 점차 감소하였다. E 아동의 경우 평소 생활에서는 자신감 넘치며 씩씩한 여장부 모습을 보이지만 음악치료 시간에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거나 노래로 만들어 부르는 것을 어려워하며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첫 번째로 의사표현하는 것을 싫어했으며 노래가 자신의 뜻대로 불려지지 않거나 주위에서 방해하는 남자 아이들이 있으면 시무룩해지며 의기소침해하거나 반대로 흥

분해서 과격한 말과 행동으로 분위기를 산만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였다.

#### (6) F 아동의 특성

부와 함께 남자만 있는 곳에(교회에서 노숙자들을 위한 방에서 생활)거주하다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과 아버지의 학대, 성숙하지 못한 양육태도를 지켜본 교회 목사님에 의해 시설에 입소되었다. 부정적인 언어 “싫어, 안해요, 몰라요, 귀찮아요, 짜증나요, 어찌라구요, 뭐요” 등을 주로 사용하며 반항적인 모습을 보이며 주변 사람들(어른들) 눈치를 많이 살핀다. ADHD 약물 치료 중이며 지능이 또래 아동보다 평균 이하이다. 평소 글을 읽거나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로 인해 주변 친구들과로부터 무시당하는 경향이 있다. 상담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F 아동은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또래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보이며, 낮은 지능으로 인해 또래에 비해 학습 능력도 많이 뒤처진다고 하였다. 치료사가 사전 검사와 프로그램 계획을 위해 기관을 방문했을 때 F 아동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음악치료 중반까지 빈번하게 관찰되었다. 아동은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말도 걸어보고 함께 어울리려고 노력하지만 사소한 일에 감정의 변화가 심한 편이라 또래 친구들이 함께 어울리기를 부담스러워했다. 또래와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F 아동은 자신의 행동에 소극적이며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매순간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을 보인다.

#### (7) G 아동의 특성

경제적 이유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시설에 맡겨졌다. 부에게 가끔 연락은 오지만 아동과 친밀하지 않다. 일 년에 1~2번 집(할머니 댁)에 다녀오면 씻

지 않은 냄새가 나며 위생상태가 좋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현재 모는 정신병원에 입원해있으며 연락이 닿지 않는다. 어렸을 적 할머니 집에서 팔에 화상을 입었으나 현재는 몇 번의 수술로 전보다 화상자국 상태가 양호하다. 다른 아동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대거나 약간의 신체 접촉으로 친밀감을 표현하면 불쾌하다는 시선을 보인다.

자기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며 자신감 없는 모습으로 “난 잘하는 거 없어요. 난 못해요.”라는 표현으로 자기에 대한 가치평가를 낮게 한다. 다른 아동에 비해 낮은 사람을 크게 경계하며 자존감이 낮으며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첫 만남 시간에 아동은 낮은 사람에 대한 경계의 눈빛으로 노력보면서 치료사의 모든 질문에 “싫어, 못해, 안 해!”라는 단답형 대답을 하였다. 초반에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음악치료에 참여하기를 거부하였지만, 계속되는 치료사의 접근과 다른 아동들의 즐거운 태도에 조금씩 반응하며 낮은 음악치료 시간과 치료사에 대한 경계를 풀고 치료사와 대화를 시도하거나 조금씩 활동에 참여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였다.

#### (8) H 아동의 특성

형(중1)과 함께 부모 이혼으로 모에 의해 입소되었다. 어머니와는 가끔 연락이 되며 일 년에 1~2번 집에 다녀온다. 심장 질환으로 2009년 수술을 받았으며 신체적 특징으로는 열과 땀이 많다. 임상심리사와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시간이나 수업시간 중 선생님의 말과 지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불안한 듯 초점 없는 눈빛으로 산만하게 두리번거리다가 결국 눈물을 흘린다. 또래 아동에 비해 독립적으로 일(과제)을 성취해내는 능력이 부족하며 대부분 주변 친구들의 도움으로 과제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자기 의사 표현 능력이 결여되어 있으며 자신감이 부족하다. 주로 자기의 주관적인 의사표현보다는

주위 친구들의 생각과 행동에 따라 즉각적으로 모방하여 대답하는 모습을 보인다.

#### (9) I 아동의 특성

이혼 가정으로 할머니에 의해 양육되다 경제적 이유로 시설에 맡겨졌다. 부는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최근에 출소하였다. I 아동은 선생님에게는 착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이지만 또래 친구들에게는 난폭하고 신경질적인 이중 모습을 보인다. 심리상담사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아동은 시설과 학교에서 또래 친구들에게 난폭 ○○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선생님의 시선이 없는 곳에서만 친구들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이상 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아동은 평소 자신감 넘치는 일상생활과 다르게 학교나 학원(공부방)에서는 독립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거나 발표하기를 부끄러워하며 다른 아동에게 순서를 떠넘기는 등 자기 의사 표현에 어려움을 보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끝을 흐리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음악치료 초반에도 이와 같은 모습을 동일하게 보였다. 아동은 다른 아동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며, 자기 순서에 다른 아동에게 먼저 대답하라고 말하며 자리를 이탈해 친구들의 주위를 배회하는 산만한 모습을 반복해서 보였다.

#### (10) J 아동의 특성

부모 이혼 후 형(초5)과 함께 시설에 맡겨졌다. 현재 부모 둘 다 연락이 되며 일 년에 한두 번 외출 나갔다가 온다. 또래에 비해 현저하게 체격이 작아 학교 입학이 1년 늦어져 현재 10살이지만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다. 지금은 스스로 배변활동이 가능하지만 1학년 때까지(~2009년) 배변훈련이 되지 않아 학교, 시설 생활 모두 어려움이 있었다. 다른 아동에 비해 생

활 적응력이 떨어지며, 치료사나 또래 친구들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지 않아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다. 소극적인 성격 때문에 자기표현 능력이 부족하며 음악치료 시간에는 다른 친구들의 생각이나 모습이나 행동, 말투 등을 모방해서 똑같이 따라하는 경향이 짙다. 상담 선생님과 상담 내용에 의하면 왜소하고 작은 체격 때문에 본인이 형임에도 불구하고 동생들에게 동생 취급을 당하면서도 불만스러운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자책하며 힘들어 한다고 한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노래 만들기 활동이 시설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 1) 자아존중감 척도

Coopersmith(1967)와 Pope, McChale, Craighead(1988) 등의 연구를 참조하여 최보가와 전귀연(1993)이 우리나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연구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체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척도 중 연구자는 가정이 아닌 시설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시설 아동의 환경과 아동의 학교생활 모습을 치료사가 관찰하여 분석할 수 없는 물리적 상황을 고려하여 가정과 학교에서의 척도를 제외한 총체적 자아존중감(6문항), 사회적 자아존중감(9문항) 두 가지 영역을 선택하였다.

총체적 자아존중감(Global self-esteem)영역은 자기 자신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평가이며 자신의 모든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근거한다. 사회적 자아존중감(Social-peer self-esteem)영역은 다른 사람에 대한 친구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포함한다. 5점 리커드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내용이 대상자의 태도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1점에서 5점까지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점수가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다. 척도에 대한 신뢰도로 Cronbach's  $\alpha$ 값은 총체적 자아존중감이 .69,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84로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 수용되는 것이 .70임을 고려하면 만족할만한 수준이다(최보가, 전귀연, 1993).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s  $\alpha$ 값은 총체적 자아존중감이 .76,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98이다.

각 하위영역에 대한 문항번호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자아존중감 척도의 문항 구성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
총체적 자아존중감 (global self-esteem)	6	1, 3, 5, 7, 9, 11
사회적 자아존중감 (social-peer self-esteem)	9	2, 4, 6, 8, 10, 12, 13, 14, 15
계	15	

### 3. 연구 설계 및 절차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노래 만들기 활동이 시설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사전-사후 검사’의 설계이다.

<표 3> 연구 설계 모형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시설아동	실험집단	O <sub>1</sub>	X	O <sub>2</sub>

X : 음악치료 프로그램 실시

O<sub>1</sub> : 실험집단 사전검사

O<sub>2</sub> : 실험집단 사후검사

####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10년 3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6주에 걸쳐 1주에 2회씩 약 50분, 총 12회 동안 S 아동양육시설 기관 내의 지역아동센터 밴드부실에서 음악치료 세션을 진행하였다. 사전 검사는 2010년 3월 27일에 이루어졌으며, 사후 검사는 5월 3일 마지막 세션 종료 후 바로 이루어졌다. 사전 사후 검사는 시설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함께 일대일로 아동을 만나 검사지를 제공하고 아동 혹은 치료사(선생님)가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 4. 자료의 분석

본 연구의 연구가설 1, 2의 검증을 위해 SPSS/WIN 1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Wilcoxon's signed-ranks test)을 실시하였다.

연구가설 1 - 노래 만들기 활동에 참여한 시설아동의 총체적 자아존중감은 사전 사후 간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 - 노래 만들기 활동에 참여한 시설아동의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사전 사후 간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 5. 노래 만들기 활동 프로그램

### 1) 프로그램의 구성

12회에 걸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일정한 구조로 진행되었다. 헬로우 송은 음악 안에서 치료사와 아동, 아동과 아동 간 인사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 창작곡으로 음악치료 시작 시간을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준비 활동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멜로디로 만들어진 창작곡과 대중적인 동요를 배경음악으로 하여 에그쉐이커를 사용한 에그패스와 오늘의 기분을 악기로 표현하는 즉흥 연주, 긴장 이완을 위한 다양한 동작을 실시하였다.

중심 활동으로는 시설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이라는 큰 목적 아래 Wheeler(1983)가 제안한 세 단계 심리 치료적 적용 이론 중 지지적 활동 중심과 통찰을 통한 재교육에 목표를 두는 음악적 접근을 사용한 노래 만들기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인 지지적 활동 중심의 음악치료에서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통한 라포 형성과 자유로운 자기표현을 통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치료사와 집단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지지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룹 구성원들의 신뢰와 따뜻함, 공감적 이해, 상호 역동적인 관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음악치료를 구성하였다. 두 번째 단계의 활동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아동들이 서로의 장점을 칭찬해주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거나(6회기-칭찬송, 7회기-사이좋은 친구), 친구의 의견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짧은 구호나 반복되는 노래 가사로 구성된 노래 부르기(5회기-나만의 꿈, 8회기-괜찮아요)를 통해 즉각적으로 그룹의 무조건적인 지지와 수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 스스로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할 수 있어!’라는 자기 통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의미 있는 또래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지와 격려는 아동에게 자기통찰을 가져다주며 더 나아가 의욕과 용기, 음악·음악 외적인 활동에 자신감과 동기를 제공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집단과 함께하는 노래 만들기(악기 연주 및 음악극)는 아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음악경험 중의 하나이다. 성공적인 연주 경험은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으로 만족을 주며 성취감과 자존감을 얻게 한다. 또한 의미 있는 노래 가사와 극의 줄거리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며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기술을 익히도록 도와준다. 중심 활동 후에는 개별적으로 오늘 활동에 대한 기분이나 소감을 나누고 굿바이 송을 부르며 마무리했다.

#### (1) 첫 번째 단계(세션 1~4) : 관심 갖기

첫 번째는 친밀감 형성 단계로 환경에 대한 적응 및 치료사와 그룹원간의 라포형성에 중점을 둔다.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아동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사회복지사와의 사전 면담을 기초로 하여 1, 2회기에는 치료사에 의해 준비된 가사와 지정된 질문에 아동과 한 번씩 주고받으며 대답하는 방식으로 노래 만들기를 진행하였다. 2회기에 치료사는 아동들이 중심이 되어 평소에 서로에게 궁금했던 질문과 답을 치료사가 제공한 동일한 음악 구조 안에서 자연스럽게 주고받으며 노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칭찬하였다. 본 연구에서 첫 번째 단계는 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해 얕으로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집단 구성원 간에 응집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초기 활동은 아동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도왔으며 개별적으로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또한 구조화된 방법의 노래 가사 채우기는 자신감이 없거나 자기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이 쉽게 음악활동에 참여할 수 있

도록 도와주는 촉진제가 되었다.

(2) 두 번째 단계(세션 5~8) : 집단의 지지와 격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집단의 지지와 격려를 통한 자기 통찰을 유도한다. 상호간의 지지와 타인에게 수용되는 경험을 제공하는 음악치료는 대상자에게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과 만족감을 주며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을 준다. 아동들은 치료사가 제공한 노래를 토대로 노래 가사를 수정하거나 새로이 창작하여 완성해가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문제점들을 인식하게 되고 집단의 지지와 인정, 칭찬, 격려는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본 연구에서 두 번째 단계의 음악치료는 주로 타인이 보는 나의 장점(잘하는 것, 어려운 일에 대처하는 자세, 성품 등)에 대해 서로가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노래를 만들어 불러주거나 타인의 의견을 지지해주는 경험을 통해 아동들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 활동들은 아동 스스로 '나는 소중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자기 통찰의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초기 단계와 다르게 음악활동에 익숙해진 아동들이 주어진 과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었다. 처음 배워보는 노래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음정과 박자가 정확하지 않아도 반복을 통해 배워서 부르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으며, 시기와 질투가 많은 여아들의 경우 초반과 다르게 타인의 장점과 특징을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소개하는 행동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몇 명의 아동은 주도적으로 노래 만드는 과정을 리드하였으며, 치료사를 대신해 리듬과 박자에 맞게 가사를 수정하여 노래를 구성하는 아동도 관찰할 수 있었다.

### (3) 세 번째 단계(세션 9~12) : 함께하기 및 정리하기

세 번째 단계는 두 번째 단계에서의 자기 통찰을 통해 흥미와 자신감, 용기를 갖게 된 아동들이 집단 구성원과 함께 악기 연주 및 음악극 활동을 통해 자신감 및 성취감을 경험하는데 중점을 둔다. 악기 연주에 사용된 노래나 음악극은 하나의 노래로 간주되며 여기서 노래 만들기란 완성도 높은 노래를 만들기 위한 집단의 연습 과정을 모두 의미한다. 노래를 완성하는 과정 중 아동은 연주하는 노래 가사와 극의 내용을 통해 긍정적인 자기 가치를 재발견하며, 결과물에 대한 치료사의 긍정적 지지와 강화는 자신감 회복과 자아존중감 향상을 돕는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노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정현주, 김동민, 2005)>, <꿈꾸는 풀잎(정현주, 김동민, 2005)>은 모든 사람이 귀중하고 가치 있으며 소중한 존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은 노래 만들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노래 가사와 내용을 습득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와 의미에 대해 깊게 생각해봄으로써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향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더불어 또래 집단과 함께 하나의 노래를 완성함으로써 성취감과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다. 끝으로 마지막 회기(12회기)에는 아동들이 자신의 변화된 모습과 생각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치료사는 대화를 유도하며 변화의 모습을 강화해줌으로써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을 지지해준다.

## 2) 프로그램 회기별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회기별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4>와 같다.

<표 4> 시설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

회기	목적	활동 내용	치료적 논거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척도 검사</li> <li>- 음악치료 프로그램 내용설명</li> <li>- 자기소개</li> </ul>	<p>편안한 분위기에서 아동들 간, 아동과 치료사간의 자기소개는 친밀감을 느끼게 해주며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치료사의 설명은 이후의 활동에 대한 동기와 흥미를 제공한다.</p>
2	자기표현을 통한 관계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를 소개해요</li> </ul>	<p>나와 남을 알고 이해하며,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을 통해 앞으로 객관적인 자기 이해를 한다. 구성원들 서로가 알아가는 시간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며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경험할 수 있다.</p>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버리고 싶은 마음과 갖고 싶은 마음</li> </ul>	<p>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은 버리고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노래로 만들어봄으로써 긍정적인 자아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p>
4			<p>나의 단점과 장점을 표현해봄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의 단점과 장점</li> <li>- 내가 원하는 것과 잘하는 것</li> </ul>	<p>자기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p> <p>또한 내가 원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노래로 만들어봄으로 자기표현과 함께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하여 자신감을 갖도록 돕는다.</p>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가 가장 잘하는 것</li> <li>- 나의 꿈</li> </ul>	<p>노래 만들기를 통해 참여자들이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해주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활동은 참여하는 아동의 자기 통찰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활동은</p>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칭찬송 만들기</li> </ul>	<p>자신감과 용기,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을 준다. 타인이 보는 나의 장점 및 특성을</p>
7	<p>자기통찰을 통한 재인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사이좋은 친구&gt; 노래로 다양한 특징과 개성을 가진 친구들을 소개하는 노래 만들기</li> </ul>	<p>가사로 만드는 과정은 타인에게 나는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알게 해준다. 또한 또래 집단의 지지와 인정은 ‘나는 괜찮은 사람, 좋은 친구’라는 자기 통찰을 유도하며 자아존중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p>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괜찮아요&gt; 노래를 사용한 빈칸 채우기</li> </ul>	<p>개사된 가사를 토대로 시설 아동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언어적, 음악적 표현을 유도함으로써 내면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p> <p>또한, 아동의 표현에 대한 반응으로</p>

		집단의 응원과 지지를 담은 후렴을 반복해서 불러주는 것은 또래 집단에 대한 강한 신뢰와 응집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9	-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당신은 소중한 사람> 연주	노래 가사는 아동이 자기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화음을 이루어 함께 연주하며 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미적 경험과 성취감 및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10 ~ 11	성공적인 음악경험을 통한 성취감, 만족감 - <꿈꾸는 폴 앞> 음악극	그룹 구성원들이 음악극을 연습하고 완성하는 과정은 미적 경험과 성취감 및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아동들은 의미 있는 음악극 내용을 통해 자신의 존재와 의미에 대해 생각해봄으로써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향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
12	- 활동 돌아보기 - 사후 검사	개인적으로 가장 의미 깊었던 시간(활동)과 자신의 행동과 생각에 가장 큰 변화를 준 활동을 회상해보면서 자신의 변화된 자아상을 확인하고 달라진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대해 인식할 수 있다.

## IV. 결 과

### 1. 결과 및 해석

#### 1) 시설아동의 자아존중감 변화

##### (1) 총체적 자아존중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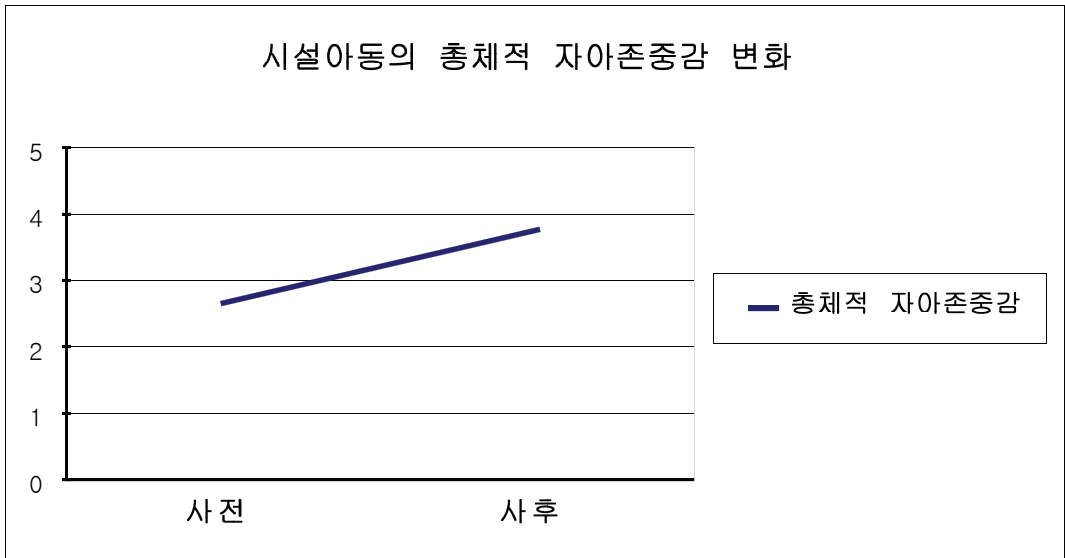
첫 번째 연구가설인 ‘노래 만들기 활동에 참여한 시설아동의 총체적 자아존중감은 사전 사후 간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Wilcoxon’s signed-ranks test)을 실시하였다.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비교 분석은 다음 <표 5>와 같다. 총체적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살펴보면 평균 점수가 사전에는 2.66( $SD=0.36$ )에서 사후에는 3.76( $SD=0.67$ )으로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z=-2.809$ ,  $p<.05$ ). 이 결과는 노래 만들기 활동이 시설아동의 총체적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5> 시설아동의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비교

구분	사전		사후		사전-사후		z	p
	M	SD	M	SD	M	SD		
총체적 자아존중감	2.66	0.36	3.76	0.67	-1.10	0.58	-2.809*	0.005

\*  $p <.05$



<그림 1> 시설아동의 총체적 자아존중감 변화

## (2) 사회적 자아존중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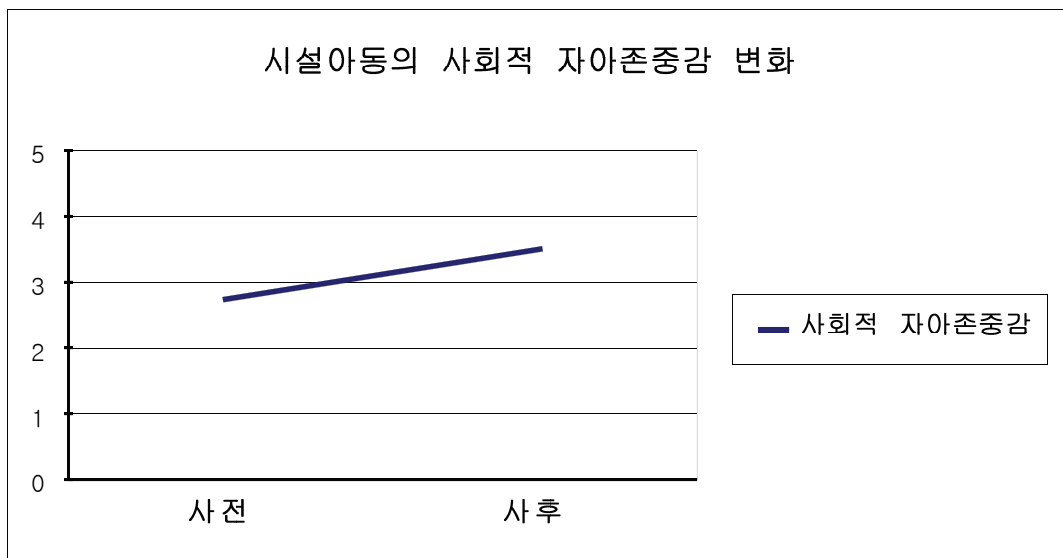
두 번째 연구가설인 ‘노래 만들기 활동에 참여한 시설아동의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사전 사후 간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Wilcoxon’s signed-ranks test)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비교 분석은 다음 <표 6>과 같다. 사회적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살펴보면 평균 점수가 사전에는 2.74( $SD=0.36$ )에서 사후에는 3.50( $SD=0.24$ )으로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z=-2.803, p<.05$ ). 이 결과는 노래 만들기 활동이 시설아동의 사회적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6> 시설아동의 사회적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비교

구분	사전		사후		사전-사후		z	p
	M	SD	M	SD	M	SD		
사회적 자아존중감	2.74	0.36	3.50	0.24	-0.75	0.50	-2.803*	0.005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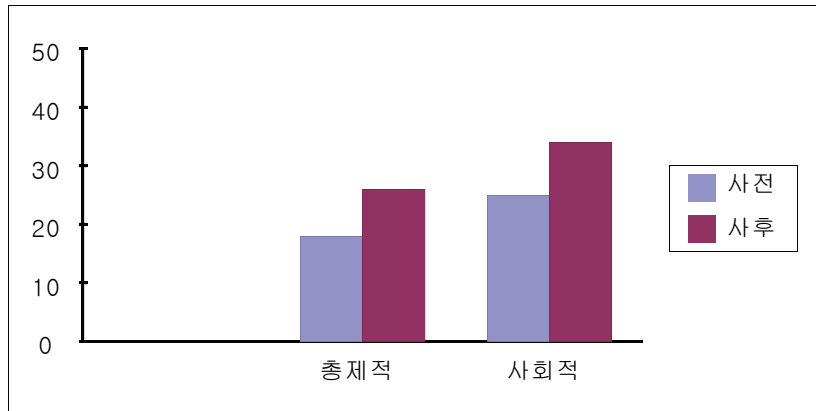


<그림 2> 시설아동의 사회적 자아존중감 변화

## 2. 시설 아동의 개인별 자아존중감 점수변화와 전반적인 행동변화

### 1) A 아동

<그림 3-1> A 아동의 사전 - 사후 자아존중감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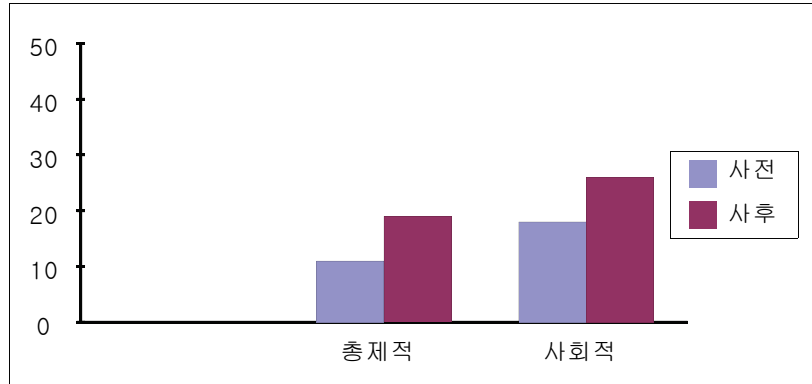
첫 만남부터 선생님에게 관심을 보이며 접근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음악치료 시간이 다가오자 다른 친구들을 급하게 부르며 참여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사 노래를 부르며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인사할 때 부끄러워하며 인사했지만 회기가 더해갈수록 적극적으로 손을 흔들며 밝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동은 초반(1~3회기)에 짧은 노랫말 채우기조차도 어려워하며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보였다. 특히 낯선 노래(창작곡)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이며 “못해요 안해요” 식의 부정적이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사는 A 아동의 경우 노래가 충분히 인지되고 익숙해졌을 후반부에 노래 만들기를 시도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은 점차 자신감 있는 모습을 회복하며 자신의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5~8회기에는 다른 아동의 성품과 특징, 장점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며 칭찬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자신에 대한 다른 친구들의 칭찬과 격려에는 “진짜 내가 그래? 내가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 난 몰랐는데...”라며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친구들이 만들어준 칭찬송을 중얼거리며 칭찬 개수를 세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의 만남에서도 계속해서 칭찬송을 부르며 칭찬 내용을 노트에 적어 들고 다니며 주변 교사들에게 자랑하는 모습을 보였다. 9회기 연주활동에서는 초반의 의기소침하고 자신감 없는 모습은 사라지고 차임 연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였다. 10~11회기 <꿈꾸는 풀잎(정현주, 김동민, 2005)> 음악극에서는 배역을 맡진 않았지만 노래 중간에 연주되는 칼라벨을 맡아 자기 역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 A 아동은 11회기가 끝나고 소감을 나누는 시간에 “함께 노래를 만드는 과정이 너무 즐겁고 재미있었다. 나중에 또 하고 싶다”고 말하며 “꿈꾸는 풀잎이 소중한 존재이듯 우리 모두도 소중하다.”라는 의미 있는 말을 남기기도 하였다.

전반적으로 A 아동의 소극적인 행동과 자신감 없는 작은 목소리는 음악치료가 진행될수록 감소했으며 적극적으로 음악에 반응하고 또래 친구들의 격려와 응원에 힘입어 다른 아동보다 먼저 손을 들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발표하거나 연주 및 노래하는 발전적인 모습을 보였다.

## 2) B 아동

<그림 3-2> B 아동의 사전 - 사후 자아존중감 변화



B 아동은 언어 장애가 심해 초반부터 치료사 및 아동들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 음악치료를 시작할 당시 아동은 다른 아동들에 비해 자신감이 심하게 결여된 상태였으며 또래 남자친구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놀림 받아 의기소침해져있는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주위의 여자 친구들이 어눌한 B 아동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친구나 선생님에게 통역해주었으며 괴롭힘 당하거나 무시당할 때 옆에서 보호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음악치료 초반(1~3회기)에는 부정확한 발음 때문에 아동이 무슨 노래를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짐치럼 가늠하기 어려웠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치료사는 아동과 함께 천천히 노래 부르기를 반복하였다. 치료사의 관심과 아동의 특징에 초점을 맞춘 치료 접근은 아동이 전보다 또렷하고 정확한 발음으로 노래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주었다. 이러한 자신감은 아동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였으며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피하려는 행동도 감소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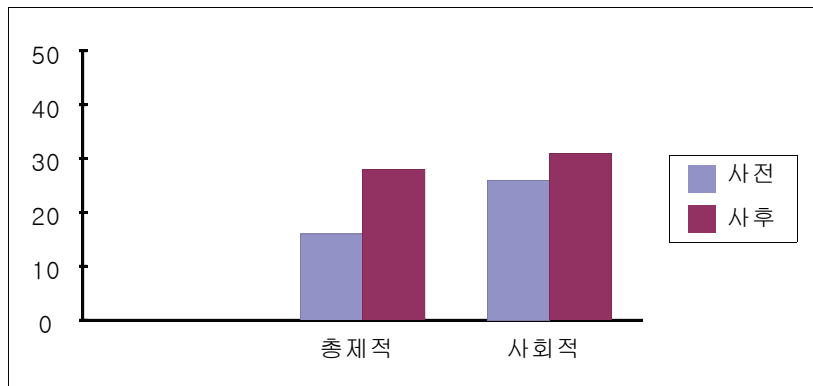
집단의 지지와 격려를 통한 자기통찰의 단계인 5~8회기에서는 “노력하는, 밝은, 씩씩한, 얼굴이 예쁜, 포기하지 않는, 즐넘기를 잘하는 ○○” 등 다양한 수식어로 칭찬해주는 친구들의 격려에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단점(말의

어눌함)을 보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9~11회기 악기 연주 및 음악극 활동에서는 노래 부르는 활동과 음악극 역할보다 악기 연주에 흥미를 보였다. 아동은 음악극에서 에그셰이커와 윈드차임을 연주한 후에 자신의 연주에 만족스러워하며 기쁜 감정을 드러내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아동의 문제 행동에 적합한 치료사의 치료적 접근과 또래 아동들의 격려과 지지는 B 아동의 위축된 의사소통 기능을 향상시키고 부정적인 자기 평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 3) C 아동

<그림 3-3> C 아동의 사전 - 사후 자아존중감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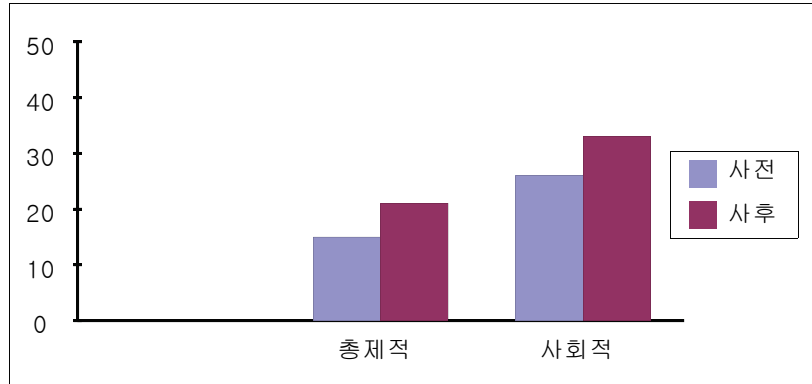
C 아동의 경우 ADHD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으로 음악치료 시간 초반에 빈번히 자리 이탈을 하며 옆 친구를 괴롭히거나 말을 거는 행동으로 활동을 방해하는 주위 산만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남들에게 피해를 줬던 자신의 모습은 생각지 못하고 본인이 노래를 부르는 차례가 되었을 때 시끄럽게 떠드는 아동이 있거나 주목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인상을 찌푸리고 불쾌감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문제 행동으로 인해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함께 면담을 한 후 음악치료 시간에 자신의 순서가 중요한

것처럼 다른 친구들의 순서도 존중해주자는 약속을 받고 다시 음악치료 활동에 참여하였다. 상담 이후 주위 산만한 모습을 쉽게 감소하지 않았지만 다른 아동의 순서일 경우 크게 방해하는 모습은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이호○ 아동의 경우 또래 친구들이 자신의 노래를 들어주고 그 노래에 대해 반응하는 모습에 영향을 받아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므로 치료사는 C 아동이 의견을 제시할 때마다 또래 친구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아동은 5~8회기 친구들의 칭찬과 격려, 지지가 담긴 노래 선물과 응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려는 동기와 의지를 보였으며, 친구들이 인정해주는 자신의 모습에 자부심을 가지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참여하는 자세를 보였다. 아동은 6회기에 자신을 제외한 9명의 친구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칭찬하는 것을 즐거워했으며 활동에 몰입할수록 초반과 다르게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9~11회기 활동에서도 다양한 악기와 음악극에 흥미를 느끼며 악기 선택 및 배역에도 적극 참여하였으며 스네어 드럼과 칼라벨, 바람 역할을 맡아 열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마지막 종결 회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무엇”이냐고 묻는 치료사의 질문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차임 연주”라고 하며 자신이 연주를 너무 잘한 것 같으며 노래가 참 좋아서 평소에도 자주 부른다고 대답하였다.

C 아동의 경우 초반에 비해 음악활동에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짐으로 주위 산만한 문제 행동이 점차 감소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또래 친구들의 칭찬과 지지가 음악 활동에 동기부여가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 4) D 아동

<그림 3-4> D 아동의 사전 - 사후 자아존중감 변화



D 아동은 무표정한 얼굴과 시무룩한 표정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기분인지 좀처럼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아동으로 주로 시설의 E 아동과 교류한다. 초반에(1~2회기) 자기소개를 할 때 D 아동은 간단한 노랫말 채우기 임에도 불구하고 E 아동의 눈치를 보며 노래하는 의존적인 모습을 보였다. 아동은 계속되는 치료사의 적극적인 중재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사와 감정 표현에 자유롭지 못하며 E 아동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을 보였다. 치료사는 D 아동의 독립적인 활동을 위해 3회기부터 E 아동과 멀리 떨어진 자리로 재배치했다. 이후로 D 아동의 모습이 눈에 띄게 호전되지 않았지만 E 아동의 시야에서 벗어나 음악활동에 참여하면서 치료사와 주위 아동들과 짧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3회기 활동에서 갖고 싶은 마음과 버리고 싶은 마음에 대해 노래를 만들 때 처음에 주저하다가 말하기를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싶고, 자신은 왕따가 아니라는 마음을 버리고 싶다고 표현하였다. “왜 왕따라고 생각하냐”라고 묻는 치료사의 질문에 “나는 친구가 없다. 친구들이 날 싫어한다. 안 친하다.”라고 대답하였다. 이 의견에 대한 다른 아동들의 말을 들어 보니 “D는 E와 매일 함께 다니기 때문에 친해질 시간이 없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지금이라도 D 아동과 친해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의 대답에 D 아동은 놀란 표정과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또래 친구들과 사이 좋게 지내기를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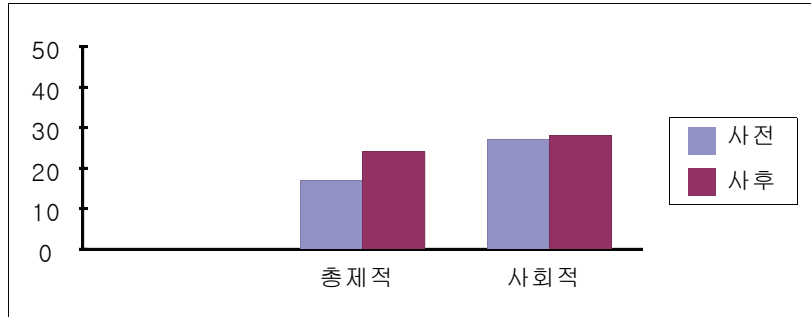
5~6회기 활동에서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노래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설 친구들이 말해주는 자신의 장점에 대해 놀라며 “내가 달리기를 잘하고 밥 잘 먹는 것, 친절하 것이 장점인지 몰랐다”며 부끄러워하며 만족해하는 표정을 보였다.

아동은 10~11회기 음악극에서 주인공 풀잎 역을 맡아 노래와 멘트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자신의 역할과 노래 부르는 모습에 만족해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의하면 꿈꾸는 풀잎 음악극 역할이 각 아동들에게 배정된 후에 아동들이 스스로 장소를 정하고 모여서 노래와 대본 연습을 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특히 비중이 큰 풀잎 역할을 맡은 D 아동은 매일 대사와 노래 연습에 시간가는 줄 모르고 즐거워하며 준비했다고 한다. 12회기 종결 회기에 치료사가 D 아동에게 음악치료 시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좋았던 것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하자 주저 없이 “안 친했던 친구들과 친해져서 좋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재미있었어요! 나중에 또 오세요”라며 활기찬 모습을 보였다.

초반에 E 아동과의 상호교류밖에 없었던 D 아동은 치료사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다른 아동들과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또한 의존적이고 우울한 모습은 지속적인 음악치료를 통해 친구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 점차 변화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 5) E 아동

<그림 3-5> E 아동의 사전 - 사후 자아존중감 변화



E 아동은 또래 친구들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아동이다. 아동은 첫 시간에 치료사에게 이유 없이 큰 소리 치며 “이런 거 안 해요. 대답 안 해야지.”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다른 아동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며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음악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동은 노래 부르는 활동보다 악기(차임 및 음악극 사용 악기)에 관심을 갖고 연주하는 활동(9~11회기)에 높은 집중력과 호기심, 흥미를 보였다. 자기표현을 유도하는 2~4회기 활동에서 간단한 노랫말 채우기를 시도했을 때 “첫 번째로 못 하겠어요”라며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였지만, 다른 아동이 시도한 후에 자기의 순서가 되었을 때는 준비된 노래를 차분하게 부르는 모습을 보였다. E 아동의 경우 노래가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불러 보고 준비가 됐을 때 발표를 시키면 자신 있는 목소리로 크게 치료사와 주고받으며 즐겁게 노래 부르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음악 활동에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문제되는 난폭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D 아동에게 집착하며 괴롭히는 모습이 점차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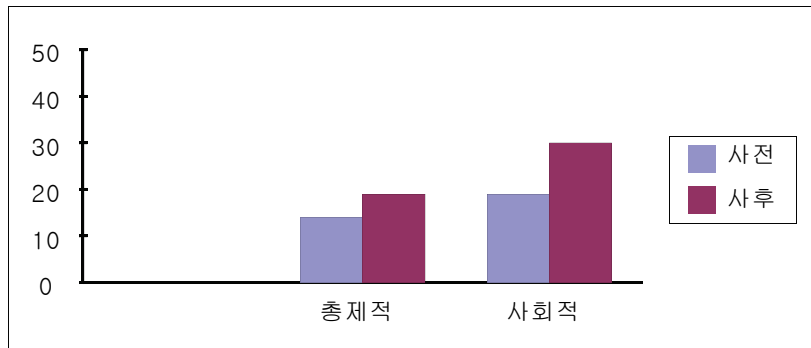
5회기 <잘하는 것, 나만의 꿈>활동에서 가장 자신 있는 것은 운동(달리기, 줄넘기)이며 나와 같은 아이들을 잘 보살펴주는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표현을 하였다. 다른 아동들 역시 E 아동이 운동 잘하는 것에 대해 적극

적으로 찬성하며 2학년 여자 중에서 제일 빠르고 힘이 세다는 부연 설명을 하며 칭찬하였다. 하지만 E 아동은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것이 부끄럽고 어색한지 “하지마! ○○이도 잘해!”라며 다른 아동의 이름을 언급하였지만 친구들의 칭찬이 기분 좋은 듯 얼굴을 붉히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보였다. 유독 D에게 집착하는 모습은 음악 활동 중에 다른 아동과의 상호 교류를 통해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다른 아동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상호작용으로 서로 친밀해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초반의 어색해하며 활동에 소극적으로 참여했던 모습은 감소하고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발표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연주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E 아동은 차임에 관심을 보이며 이리저리 만져보고 신기해하며 귀에 대고 반복해서 악기 소리를 감상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E 아동은 “친구들이 ○○이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노래 불러주었을 때 가슴 찡하고 눈물 날 뻔했다고 표현하였다. 이렇듯 친구들의 칭찬과 관심은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6) F 아동

<그림 3-6> F 아동의 사전 - 사후 자아존중감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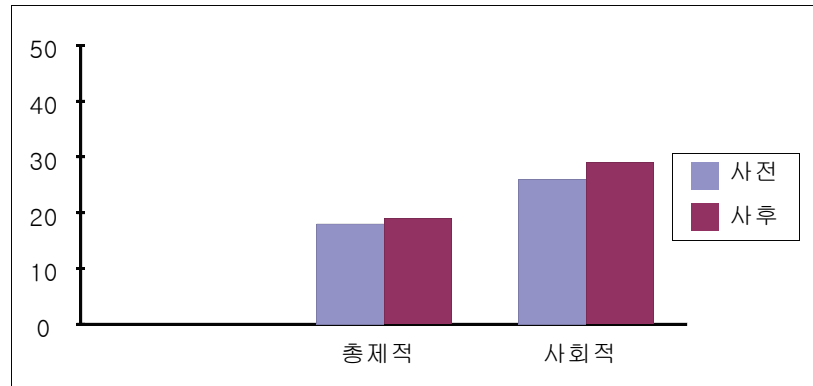
F 아동의 경우 음악치료 활동이 총체적, 사회적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아동은 초반에 치료사에게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며 스스로 음악적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했다. 치료사가 다른 아동에게 관심을 갖고 있으면 계속해서 치료사를 부르며 눈 맞춤을 시도하며 관심 받기를 원했다. 또한 또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치료사에게 고자질하여 해결하려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였다. F 아동은 1~4회기 활동 중에도 다른 아동과의 별다른 상호교류가 없었다. 또래 친구들과 친밀하지 못한 것 때문에 치료사에게 친근함을 보이며 가까운 사이가 되기를 바라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아동은 자신의 장점 혹은 특징, 마음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며 치료사에게 자신의 특성을 되물어보며 의존적으로 노래를 만드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치료사는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통해 F 아동 스스로 생각해보고 주제(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으며 다른 아동들에게 답변에 대한 의견을 물어봄으로 또래와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음악적 환경을 제공하였다. 이로 인해 아동은 점차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자신감을 갖고 활동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였으며, 옆 자리에 앉은 동생 혹은 또래와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5~8회기 집단의 칭찬과 인정을 통해 자기 통찰을 할 수 있는 활동에서는 내가 가장 잘하는 것, 나만의 꿈 활동을 시작으로 칭찬송과 사이좋은 친구 노래 만들기를 통해 다른 아동들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칭찬하며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였다.

음악치료 회기가 더해갈수록 아동은 치료사와의 상호작용보다 또래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이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은 치료사에게 의존적이던 모습을 버리고 무엇이든지 스스로 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 문제 행동으로 보이던 감정의 큰 변화도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남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을 배움으로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 7) G 아동

<그림 3-7> G 아동의 사전 - 사후 자아존중감 변화



G 아동의 경우 총체적,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양적인 큰 변화는 없지만 음악치료 활동을 통해 사람을 거부하며 경계하는 낮가림이 감소하였으며 치료 전보다 높은 자기 평가를 하게 되었다.

아동은 첫 만남부터 공격적이며 부정적인 말투와 행동으로 음악활동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지만 치료사의 적극적인 중재와 다른 아동들의 높은 참여도가 동기 부여가 되어 조금씩 활동에 간섭하며 참여하게 되었다. 1~3회기에는 다른 친구들에게 자신의 다양한 면을 공개하기를 꺼려했지만 치료사의 적극적인 중재와 대화를 통해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아동 본인이 생각하는 장점과 특징이 다른 아동들이 생각하는 G 아동의 특징과 동일하였으며, 이때부터 또래와의 활발한 상호교류가 시작되었다. G 아동의 뛰어난 운동 감각에 대한 또래 아동들의 공감은 G 아동이 친구들에게 마음을 열고 상호관계를 시작하는 연결고리로 작용하였다. 이를 계기로 아동은 전보다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친구들의 장점을 칭찬하는 6회기 활동에서 운동 방면으로 다양하게 다른 아동들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치료사와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낯선 사람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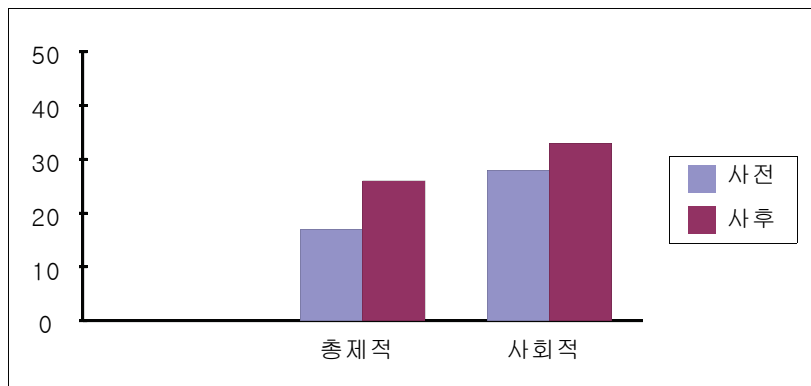
계하는 모습이 점차 감소하였으며 중반부터는 활동 후에 자리정돈을 도우며 먼저 대화를 건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아동은 5~8회기 활동을 통해 자신이 잘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며 자랑스러워하였다. G 아동에게 있어 차임연주와 음악극 활동은 또래와 더욱 친밀해지며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작은 배역이었지만 바람 역할과 악기 연주를 맡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음악극이 끝나고 소감을 말하는 시간에 갑자기 윈드차임을 은은하게 연주하더니 “우리 모두가 풀잎이야”라는 감동적인 말을 하며 다른 아동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G 아동은 활동 초반에 부정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데 서툰 모습이었지만, 지속적인 음악활동을 통해 자신의 의사와 감정을 적절하고 부드럽게 표현하는 발전적인 모습을 보였다.

## 8) H 아동

<그림 3-8> H 아동의 사전 - 사후 자아존중감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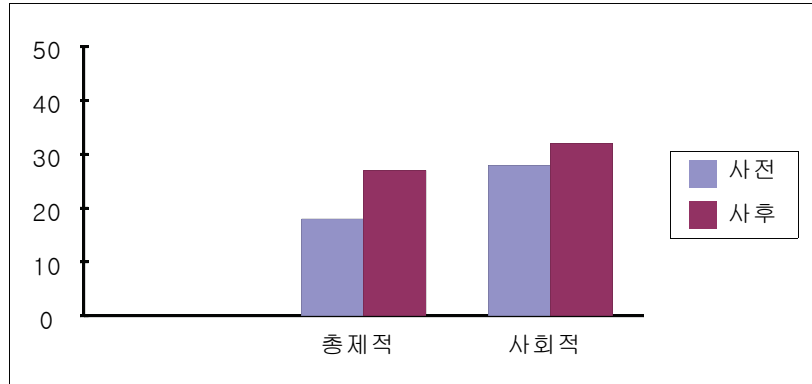
H 아동은 스스로 대한 자부심이 없고 또래 아동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며 난감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예로 자기소개를 하는 간단한 노랫말 채우기 활동에서 치료사가

던지는 간단한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다가 결국엔 눈물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다. 다른 아동 앞에서 주목받는 것을 괴로워했으며 자기 의사 표현보다는 친구들의 생각에 동조하며 모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집단으로 질문을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며 또래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저요! 저요!” 소리를 지르며 시키지도 않았는데 손을 든 상태에서 대답한다. 이에 치료사는 H 아동이 손을 들고 말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아동의 말을 재확인하듯 되물어보고 음악적으로 반영하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치료사는 이러한 방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H 아동이 음악활동에 재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특히 가장 친한 친구인 I 아동의 칭찬과 격려는 음악활동에 흥미를 느끼게 해주며 자신감을 제공해주는 큰 힘이 되었다. H 아동은 지속적인 노래 만들기 활동을 통해 의사 표현 하는 것을 배웠으며 독립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 음악활동 중에 친구들의 격려와 인정은 H 아동이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되었으며, 성공적인 연주와 음악극 완성은 “나도 남들처럼 할 수 있구나”라는 성취감과 만족감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치료적 활동을 통해 아동은 음악활동 뿐만 아니라 음악 외적인 활동과 대인관계에서도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초반에 보이던 문제 행동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보였다.

## 9) I 아동

<그림 3-9> I 아동의 사전 - 사후 자아존중감 변화



I 아동은 음악치료 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자세와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회복하였으며 또래 친구들 혹은 동생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속함으로 초반에 보이던 난폭하고 신경질적인 성향은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끔씩 자신을 귀찮게 하며 주위를 산만하게 만드는 C 아동과 E 아동을 겁주는 행동을 보였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초반에는 유독 절친한 H 아동과 상호 작용하는 시간이 길어 다른 아동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치료사가 다른 아동에 대해 질문하는 방법으로 주의를 돌렸다. I 아동 역시 시설 아동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의사, 감정 표현 결여, 자신감 부족 등의 문제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며 독립적으로 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치료사가 지지하고 격려해줌으로 충분히 자기표현 및 자기 통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였다. 첫 번째 순서를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다른 아동을 먼저 발표하게 함으로 부담감을 덜어주었으며 이로 인해 불안해하는 모습과 산만한 행동이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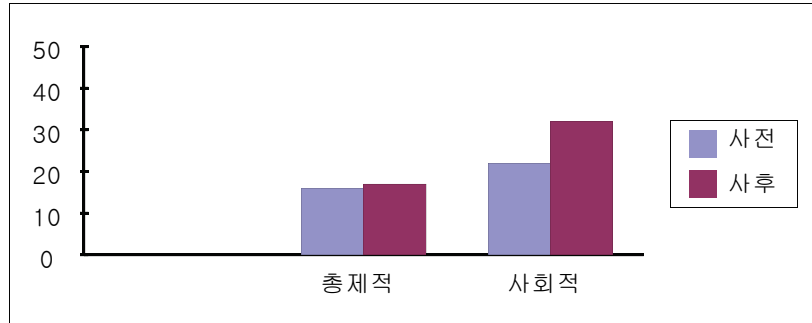
I 아동은 6회기 칭찬송 활동에서 여자보다 남자 친구의 칭찬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적극적으로 노래를 만드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자신의 칭

찬 노래를 만드는 시간에는 많은 친구들이 자기에게 주목하며 칭찬 내용을 말하는게 부끄러운지 시선을 피하며 얼굴을 붉혔지만 이내 친구들의 칭찬 내용에 따라 자신이 칭찬받았던 행동이나 상 받은 내용을 회상하며 격양된 목소리로 자랑하듯 말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른 아동에게 칭찬 받은 내용은 주로 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달리기, 줄넘기를 잘한다는 것이었는데, 자신의 꿈인 운동선수(달리기)와 관련된 칭찬이어서 그런지 칭찬 내용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즐거워하였다.

9회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차임 연주 활동은 교회에서 불러본 노래라며 자신있게 무반주로 노래 부르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10~11회기 음악극에서는 자원해서 나레이션 역할을 맡았다. 2회기 동안 진지한 모습으로 맡은 역할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다른 아동들이 순서를 잊거나 노래 가사, 대사를 잊어버리면 총 책임자처럼 챙겨주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이 또래와 함께하는 음악활동은 I 아동이 자기주도적 인물이 될 수 있도록 돕는 동기가 되었으며, 노래 만들기를 통한 친구들의 인정과 격려를 아동이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10) J 아동

<그림 3-10> J 아동의 사전 - 사후 자아존중감 변화



전반적으로 J 아동은 초반에 수줍어하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또래 아동과 동화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회기가 더해갈수록 참여의 정도가 증가하고 자기표현 능력 및 자신감이 향상된 모습을 보였으며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J 아동의 경우 사회적 자아존중감의 사전 사후 변화가 큰데 이는 다른 아동들과의 지속적인 관계형성을 통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음악치료 초반에 치료사는 나만의 장점과 나만의 특징 등 다방면에서 자기 스스로 긍정적인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증재하였으며 이를 다른 아동들에게 인정받음으로 자신감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5~8회기 집단의 칭찬과 인정을 경험할 수 있는 노래 만들기를 통해 실시하였다. 형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체격과 소극적인 성격 때문에 9명의 아동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했던 자신의 모습이 아닌 또 다른 나의 모습을 찾게 해줌으로써 본인 스스로 높은 가치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처럼 J 아동은 음악 안에서 친구(동생)들의 응원과 칭찬, 지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행복해하며 밝게 웃는 모습을 매 회기 반복해서 보여주었다.

## V. 결론 및 논의

### 1.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노래 만들기 활동이 시설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려고 시행되었다.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S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초등학교 1~2학년(8~10세) 아동 10명을 대상으로 12회기 노래 만들기 활동을 실시한 후 사전-사후 설문 데이터를 SPSS Win 1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Wilcoxon's signed-ranks test)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양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노래 만들기 음악치료 개입 후 대상 아동들의 개별적인 행동변화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래 만들기 활동은 시설 아동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시설 아동들은 노래 만들기 활동을 실시하기 전보다 실시한 후에 높은 자아존중감 점수를 보였다. 총체적 자아존중감의 평균 점수는 2.66( $SD=0.36$ )에서 3.76( $SD=0.67$ )으로 증가하였으며( $p<.05$ ),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2.74( $SD=0.36$ )에서 3.50( $SD=0.24$ )로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

둘째, 개인별 총체적, 사회적 자아존중감 점수 비교 결과 사전 점수에 비해 사후 점수가 향상되었음을 보였다. 또한 치료사에 의해 기록된 개인별 대상자들의 전반적인 행동변화 분석 결과 다수의 아동이 회기가 거듭될수록 초반에 비해 언어, 행동, 음악적으로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 활동이 시설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들(김미성; 2001, 박은진; 2007, 유진경; 2009)과 일치함을 보인다.

음악치료 초기에 대상 아동들은 노래 부르기 및 만들기 활동에서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머뭇거리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G 아동의 경우 또래 아동들에 비해 자신감이 심하게 결여되어 있었으며 낯선 음악치료 환경에 육체적,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치료사의 간단한 제안에도 눈물을 보이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모습은 일상생활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상담심리 선생님과 사전 조사를 통해 들었기 때문에 치료사는 남들 앞에서 노래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야하는 음악치료 시간에 아동이 평소보다 더 위축되고 긴장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 예상하였고 그 예상은 음악활동을 통해 관찰되고 확인되었다. 하지만 아동은 매회기 음악치료를 통해 치료사에 의해 계획된 간단한 구조의 빈칸 채우기 및 개사하기를 반복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거나 노래로 만드는 과정에 즐겁게 참여하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G아동은 또래 친구 I 아동의 지지와 강화를 통해 자신감을 갖고 의욕적으로 음악활동에 참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또래가 정서적 지지의 근원이 되며 또래 관계를 통해 아동들이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돌봄을 표시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자아 지지를 제공한다는 Hartup(1985)의 선행연구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초기 과정을 통해 시설 아동들은 치료사의 적극적인 지지와 강화가 제공되는 안전한 환경에서 자기표현을 통한 관계 형성을 경험 할 수 있었으며, 더불어 음악치료에 대한 흥미와 동기부여로 계속해서 활동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음악치료 중반의 또래의 칭찬과 지지, 격려를 담은 노래 만들기 활동은 아동들의 총체적,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자아존중감이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통해 계속해서 수정되고 변화한다는 Coopersmith(1967)와 박지은(2010)의 선행연구를 지지한다. 5~7회기 중반 활동은 타인이 지각하는 자신의 다양한 모습을 노래로 만드는 과정을 통

해 자기 통찰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간은 아동들이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장점과 강점, 좋은 성격과 특징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시설에서 또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D 아동과 F 아동은 5~7회기 노래 만들기 활동을 계기로 점차 다른 아동들과의 대화에 참여하며 상호 교류하는 모습을 보였다. D 아동의 경우 E 아동과의 과한 친밀함 때문에 다른 아동과 대인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치료사의 적극적인 중재와 노래 만드는 과정은 다른 아동들과의 상호교류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D 아동은 다른 아동과의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경험함으로써 E 아동에게 의존적이던 모습이 감소하고 차츰 밝은 모습을 띄며 집단에 동화되어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미 있는 타인(또래)의 인정과 칭찬은 아동 스스로가 ‘나는 괜찮은 사람, 소중한 사람, 특별한 무엇을 남들보다 뛰어나게 잘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자기 통찰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였으며, 자신의 가치와 평가를 재인식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시설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아동들은 치료사와 또래의 지지적인 환경에서 지속적인 음악치료 활동을 통해 성공적인 음악적 경험을 함으로써 자신감과 자존감을 얻게 되었으며, 적극적으로 음악활동에 참여하여 미적으로 완성도 높은 노래를 만들기 위해 또래와 협력하며 노력하는 동시에 노래 만드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음악치료 초기, 아동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할 수 없다는 무력함과 거부감, 일관성 없는 자기표현으로 자신감을 상실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음악 치료를 통한 지속적인 치료사의 강화와 지지적인 환경, 또래 집단의 칭찬과 인정, 격려가 담긴 노래 만들기, 성공적인 음악경험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었음을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낮은 자아존중감이 의미 있는 타인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변화되고 향상될 수 있다는 이론을 시설 아동에게 의미 있는 대상인 시설의 또래

집단과 함께하는 음악치료를 통해 연구하고 증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아존중감이 인간의 바람직한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요인임을 생각해 볼 때 매년 증가하는 시설 아동의 낮은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국내 음악 치료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건강한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고 바람직하게 성장하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연구와 지속적인 주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VI. 제 언

### 1. 제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제한점들과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체 12회기 음악치료로써 아동들에게 치료적 효과를 검증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다. 자아존중감은 단기간에 큰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목적을 가진 음악 치료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매년 증가하는 시설과 보호아동의 수를 고려해 인지, 정서, 사회, 행동적 측면의 문제 개선을 위한 활발하고 지속적인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둘째, 양육시설 내부 규칙상 비디오 녹화와 오디오 녹음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아동의 행동이나 표정, 언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어려웠다는 점이다. 치료사의 기억과 활동에 대한 당일의 평가 기록에만 의존하여 전반적인 행동 변화에 대해 분석했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시설 아동의 담당 심리상담 선생님, 아동들을 관리하는 사회복지사, 주중에 방문하는 언어치료사 등 아동들의 문제 행동 및 개선의 여지를 평소에 관찰할 수 있는 기관 선생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음악치료사와의 연계,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는 실험집단의 결과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통제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음악치료 중재유무를 통한 자아존중감 향상의 차이를 알아볼 수 없다는 점이 한계이다. 현재 국내 음악치료 연구 중 시설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는 소수를 대상으로

로 한 사례 연구밖에 없는 부족한 실정이라 다수의 시설아동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여 집단음악치료를 시행한다면 보다 더 향상된 음악치료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가 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시설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무선표를 방식으로 배치하지 않고 연구자에 의해 선택된 시설에서 시설아동이라는 정의에 충족되는 아동 중에서 선생님의 추천에 의해 선정된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를 무작위로 할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보완한 후속 연구가 시행되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강정숙(2005). 집단음악활동 프로그램이 결손가정 자녀들의 정서변화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강효정(2004). 시설아동의 그룹활동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인천광역시 양육시설 초, 중, 고생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2010). 아동복지법. (2010. 10. 28.)  
<http://likms.assembly.go.kr/>
- 권세은(2002). 시설보호 아동과 일반아동의 사회적 기술, 정서조망 능력과 자기역량 지각의 비교.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기영, 김춘경(2003). 사회적 기술 증진 프로그램이 시설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 **한국아동복지학**, 16, 7-36.
- 김미성(2001). 시설 아동의 자존감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 음악치료의 효과: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미숙(2009). ADHD진단을 받은 시설아동의 음악치료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 김삼희(2007). 집단심리치료가 시설아동의 또래관계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김선미(2005). 가출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음악치료활동 사례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소연(2001). 편부·편모 가정환경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수진(2002). 사회적 지지가 시설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림대학교.

- 김영미(2000).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주는 변인. 석사학위논문. 군산대학교.
- 김은정(2007). 결손가정 청소년의 자기표현을 위한 노래 만들기 활동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정은(2003). 집단 음악활동이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우울감 감소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김혜숙(1996). 우리나라 건설보호아동의 자립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노명숙(2004). 일반아동과 시설아동의 우울성향, 자아존중감, 학교적응에 관한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춘천교육대학교.
- 노현미(2009). 치료놀이를 병행한 인간중심적 집단미술치료가 시설보호아동의 정서·사회적 적응능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 도현심, 최미경(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또래 경험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2), 19-33.
- 민자용(2010). 역량지각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안양대학교.
- 박경리, 김경연(2001). 아동의 영역별 자아존중감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 및 또래 수용도의 영향 : 단짝친구 지지의 중재효과. **아동학회지**, 22(4), 85-97.
- 박미자(2005). 아동의 가정환경과 학교관련 태도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 박영림, 최해림(2002).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부·모 애착, 부부갈등 지각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3), 741-755.
- 박은진(2007). 노래 심리치료가 시설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박인숙(2006). 집단미술치료가 복지시설아동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박지은(2010).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유형과 자아존중감 및 또래관계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 박행모, 문승태, 양정화(2002). 부모와의 애착이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5(3), 113-125.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2010). 2011년 아동복지시설현황. (2010. 10. 30)  
<http://stat.mw.go.kr/>
- 서초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서울대학교 실천사회복지연구소(2007). **실천가와 연구자를 위한 사회복지척도집**. 서울: 나눔의 집.
- 선우현(2006). 학습장애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가족놀이치료의 효과성 사례연구. **아동교육**, 16(1), 201-212.
- 송 순(1998). 사회적 지원이 시설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내적 통제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1), 91-108.
- 신원영(2010).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ARCL모형을 적용한 중단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2, 7-32.
- 신진희(2005). 학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신화숙(2006). 양육시설 보호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독서치료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남부대학교.
- 안지숙(2009). 집단음악치료활동이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향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유광수(2001). 시설아동과 일반아동의 행동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 유안진, 한유진, 김진경(2003). 시설 보호 아동의 또래관계 증진을 위한 사회적 역량 프로그램의 효과. **아동학회지**, 24(2), 109-121.
- 윤소연(2001). 집단음악활동이 취학전 아동의 긍정적 자아개념 향상에 미치는

- 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이경님(1997). 아동의 자아존중감, 내외통제신념과 모의 양육태도와의 관계. **대학원논문집**, 22, 403-424.
- 이명선(2009). 노래 중심의 음악치료가 사할린 귀환동포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이미숙(2002). 가정 형편에 따른 중학생의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 이수희(2005). 집단놀이 활동을 통한 아동의 자아존중감 변화 사례연구 : 편부모가족 방임아동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이숙, 최정미(2003).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또래수용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2), 31-42.
- 이지혜(2009). 집단음악치료가 시설아동의 내외통제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 임해주(2009). 집단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이 보육 시설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임현정(2009). 노래심리치료가 내재화된 정서문제를 갖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증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장영숙, 윤경아(2005). 양육시설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미술치료 사례 연구. **생활지도연구**, 24, 91-113.
- 정현주(2005). **음악치료학의 이해와 적용**.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정현주, 김동민(2005). **아동들을 위한 음악치료 놀이극**. 서울: 학지사.
- 최미환(2006). 노래심리치료. 정현주(편), **음악치료 기법과 모델** (pp. 236-268). 서울: 학지사.
- 최병철(2006). **음악치료학(2판)**. 서울: 학지사.
- 최보가, 전귀연(1993). 자아존중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1). **대한가정학회지**, 31(2), 41-54.

- 최소림(2006). 노래를 중심으로 한 집단음악치료활동이 장애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불안감소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최애나(2007). 음악치료가 소득계층별 아동의 공격성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최은희(2006). 집단미술치료가 시설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우울 변화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추이현(2002).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이 중학생의 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한금주(1995). 일반학생 청소년과 시설수용학생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비교.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 현수경(2000). 송라이팅을 사용한 음악치료가 알코올 환자의 자아존중감 및 통제소 인식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홍수진(2011). 집단음악치료가 초등학교 1학년 시설 아동의 무망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 홍영미(2010). 시설보호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과 행동문제와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12), 187-209.
- Clare, C. O'callaghan. (1997). Therapeutic Opportunities Associated with the Music When Using Song Writing in Palliative Care. *Music Therapy Perspectives*, 15, 32-38.
- Irvin, D. Yalom., & Molyn, Leszcz. (2005).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 최해림, 장성숙(역). (2008). **최신 집단정신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도서출판 하나의학사.
- Bruscia, K. E. (1998). Deffining music therapy. 최병철(역). (2003). **음악치료**. 서울: 학지사.
- Ronald, M. B. (1997). Music therapy group vignettes. 이정실(역). (2004). **집단 음악치료: 실제 집단 사례 중심으로**. 서울: 학지사.

Shwu, Ming. WU. (2002). Effects of music therapy on anxiety, depression and self-esteem of undergraduates. *Psychologia*, 45(2), 104-114.

Tony, H. (1993). Self-esteem: The key to your child's future. 윤영삼 (역). (2006). **8살 이전의 자존감이 평생 행복을 결정한다**. 서울: 팝콘북스.

# ABSTRACT

## The Effects of Song-writing Activities on Children's Self-esteem

Mira Jo

Department of Music Therap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mpact of song-writing activities on the self-esteem of Institution ten children from the first and second grades of elementary school (ages 8-10) who were chosen for their lack of music therapy experience. For this experimental group, song-writing activities were conducted in S childcare center's music room in Seoul twice a week for 50 minutes each for a total of 12 time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Boga Choi and Kuiyeon Cheon researched and developed tools that can measure children's self-esteem. The survey measured overall self-esteem and social self-esteem which are both observable and measurable in music therapy experiments. The Wilcoxon's signed-ranks test was used to measure changes in the children's self-esteem with the SPSS Win 12.0 statistical program and their individual behavior change was described qualitatively after the music therapy program finished.

The first result was that the self-esteem scores of the 10 children increased after performing song creation activities. The average of overall self-esteem increased from 2.66 (SD=0.36) to 3.76 (SD=0.67)

( $p < .05$ ), and the average of social self-esteem increased from 2.74 (SD=0.36) to 3.50 (SD=0.24). These increases reveal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 $p < .05$ ).

Secondly, the post-test results of overall individual and social self-esteem improved from the pre-test. Analysis of the recorded individual subjects' overall behavior by the therapist showed that the children exhibited positive changes with language and music compared to the early stages. Furthermore, as the sessions were repeated, the positive changes continued.

These results suggest that song-writing activities can be an effective way to increase the self-esteem of children.

# 부 록

## <부 록 1> 자아존중감 설문지

이름 :	나이 :	성별 : 남 / 여				
		<p>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검사는 평소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내용을 잘 읽고 솔직하게 나와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 점수에 "○"표시 하세요!</p>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할 수 있다.		1	2	3	4	5
2. 나는 내 또래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있다.		1	2	3	4	5
3.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 한다.		1	2	3	4	5
4. 나에겐 친구가 많다.		1	2	3	4	5
5. 나는 주저하지 않고 결심할 수 있다.		1	2	3	4	5
6. 누구든지 나를 좋아한다.		1	2	3	4	5
7. 내 문제는 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다.		1	2	3	4	5
8. 다른 사람들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5
9. 나는 나 자신을 잘 알고 있다.		1	2	3	4	5
10. 나는 남을 재미있게 해주는 사람이다.		1	2	3	4	5
11.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1	2	3	4	5
12. 나는 남에게 좋은 친구이다.		1	2	3	4	5

13. 내 친구들은 내 말을 귀담아 들어준다.	1	2	3	4	5
14. 친구들은 주로 내 의견에 따라준다.	1	2	3	4	5
15. 나는 원하면 언제든지 친구를 사귀 수 있다.	1	2	3	4	5